

입학사정관제 실시에 따른 창의적 체험학습활동의 현황과 과제

이 성 철*

Abstract

현 정부의 대입제도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를 발굴·육성을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를 활성화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회풍조를 개선함과 더불어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학습활동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교육과정의 현황을 창의적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Keywords: 입학사정관제, 창의적 체험학습활동, 봉사학습

1. 서 론

21세기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학습 고객화’로 특징지어지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로서 인간의 삶의 형태와 활동이 지식이라는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는 ‘교육경영’과 ‘지식경영’이 매우 중요시됨으로서 교육시스템과 교육의 기능 역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며, 21세기 교육발전전략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과제 또한 지식기반사회구축과 지식의 창출 및 응용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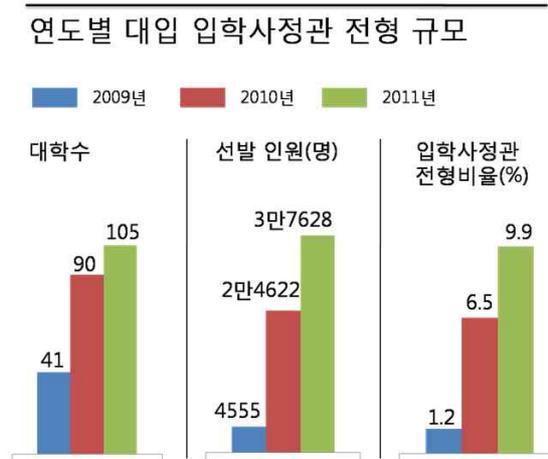
교육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전략의 큰 틀 또한 사회와 국가 전체의 구도 속에서 교육체제의 경쟁력제고가 최우선의 개혁과제가 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 남서울대학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식기반사회에 부합되는 기본여건과 활용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에 들어서서 교육의 모토(moto)를 창의·인성교육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위해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본래 입학사정관제는 노무현 정부가 2004년 대학입학제도 종합계획에 2008년부터 시범운영계획을 포함시켰으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대방침을 발표하고 시범운영결과가 알려지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상당한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학의 학생선발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환경, 지적 능력, 예·체능, 봉사정신, 리더십 등을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판단아래 지원자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입학제도이다. 2008학년도 건국대, 서울대, 인하대, 중앙대 등 4개 대학을 시범대학으로. 2009학년도 고려대, 연세대 등 32개 대학이, 2010학년도에는 경북대 등 90개의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기조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실시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2011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는 105개 대학으로 34,629명으로 전년도 90개 대학 24,622명(수시 87개 대학 22,787명)에 비해 18개 대학 11,842명이 증가하였다. 정시모집에서도 25개 대학 2,999명으로 전년도 20개 대학 1,835명에서 5개 대학 1,164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KAIST, POSTEC 등은 입학정원전체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할 예정이다.

2. 입학사정관제 실시현황



<그림1> 입학사정관전형규모

<표 1> 2010학년도 주요대학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

대학	선발인원	전체모집정원	비율(%)
건국대	350	3350	10.4
경희대	365	3516	10.4
고려대	886	3772	23.5
동국대	509	2993	17
서강대	510	1850 내외	약 27.5
서울대	140(정원외)	3114(정원내)	
서울시립대	143	1879	7.6
숙명여대	506	2278	22.2
성균관대	626	3599	17.4
KAIST	150	850내외	15-20
POSTEC	300	300	100
한국외대	678	3651	18.6
한양대	1031	5201	16.8

<표 2> 주요대학 입학사정관제 경쟁률

대학	2009학년도	2010학년도	증감
가톨릭대	10.86	8.94	-1.92
건국대	41.70	19.29	-22.41
경희대	12.05	10.85	-2.20
동국대	14.00	11.97	-2.03
서강대	17.63	13.49	-4.14
서울대	8.83	8.31	-0.52
서울여대	9.55	8.79	-0.76
성균관대	9.66	9.77	+0.11
연세대	7.11	6.85	-0.26
이화여대	12.46	11.96	-1.50
중앙대	35.20	20.00	-15.20
한국외대	16.14	19.86	+3.72
한양대	38.75	35.70	-3.05
홍익대	7.33	4.23	-3.10

2009학년도에 비해 2010학년도에 대부분의 대학의 경쟁률이 하락한 원인은 우선 저년도에 비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선발 인원 대폭증가로 지원인원이 분산되었으며, 대학별 전형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고교현장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 부족 및 준비 서류과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대학의 경우 야심차게 진행하였던 일부 입학사정관 전형이 지원을 하락으로 인하여 향후 폐지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단국대학교의 경우 2011 '단국글로벌장학전형(대학,대학원,기숙사비 전액지원+학업장려금 매월 50만)' -2010전형 20명 모집에 4명 지원, 학력조건 충족 못해 1명도 선발 못함-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창의적 인재전형 1.47:1,수학과학특기자전형 1.67:1 불과하여 입학 사정관제 전형 전반에 대한 수술을 실시 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도 '연세한마음 기초자치단체장추천전형' 8명 정원에 13명 지원 1.63:1 불과하였다.

3. 입학사정관제 기대효과

입학사정관제도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평가 및 대학선발의 개념과 기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의 점수, 학생의 체험과정, 교육환경 등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결과를 중시하며, 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부 기록에 대한 직접 확인도 하게 된다. 즉, 교육평가와 선발의 개념과 기준이 시험점수 중심의 객관성으로부터 종합적 정성적 판단의 주관성으로, 형식적 공정성으로부터 실질적 공정성으로의 일대 변혁이다.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발표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번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통해 대학이 당장의 1, 2점 점수 차보다는 대학입학 후 발휘될 잠재능력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실제로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 도입이후 점수위주의 선발방식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

대학의 선발 방법이 성적과 같은 객관적 자료보다 학생의 가능성과 잠재적 능력을 중시하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도 그에 역점을 둘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교사들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알아보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며,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보다 충실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의 자율화, 특성화가 달성되고 대학 선발의 전문성이 확대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필요한 인재를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새로운 제도이므로, 입학의 자율권과 특성화는 상당부분 달성될 것이다. KAIST와 POSTEC의 경우 100%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하여 대학의 인재상에 걸맞는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넷째, 숨은 잠재능력 발굴과 교육의 기회균등에 기여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비록 성적은 낮더라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공부했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부를 한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성격을 갖고 있

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 또는 명문대학의 입학과의 상관관계를 상당히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례로 서울의 모 대학 (지역핵심인재전형-인문학부 문예창작과 지원)에 지원한 B양은 강원산골소녀로서 전교생 36명중 석차1-3등이었고, 고교시절 쓴 시, 소설, 독서노트 300쪽 이상으로 각 쪽마다 문학선생님 싸인, 도내 논술대회 수상 등의 경력으로 합격하였다. 또한 같은 학교(자기추천자전형-인문학부)에 지원한 C양은 전남 광양출신으로 중학교 졸업까지 전교 1등, 고교 진학 후 성적급락으로 자퇴. 자퇴하는 동안 내면을 살피며 온전하게 스스로를 대면, 학교복귀 후 반장을 맡는 등 적극적인 활동. 도내 영어스피치대회 5등. 전교학생회장 출마 5표차로 낙선. 전 과목 전교 10등 이내-정시로 이 대학 입학수준은 아님-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4. 입학사정관제 문제점

입학사정관제의 특성상 태생적 불안 요인과 그동안의 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사정관제의 특징인 종합적, 정성적 평가와 선발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판단기준의 애매성 때문에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점수를 가장 예측력 높은 잠재력 지수처럼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풍토에서는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선발되면 반발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각 대학들은 이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학자체감사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설치 또는 확대 개편하여 공정성과 신뢰성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평가와 선발의 주체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되면 입학사정관제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 양성기관으로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등을 선정하여 입학사정관 양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소양교육, 입학관련 전문교육, 통계교육 등 전반적인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다소 미흡하여 이들이 사교육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 등이 변형된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실태 확인, 가정환경확인을 위한 사전접촉, 대학 나뉠대로의 면접 및 역량확인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요소에 노출되어 있다할 것이다. 구술면접의 경우 교과적 질문은 지양되어야한다.

넷째, 비용의 과다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입학사정관제는 고도의 전문가를 상당수 충원해야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증대시키는 부단한 연수와 훈련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007년도에 10개 대학에 18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더구나 이 대학들은 대응투자비로 상당액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들 대학에 2009년도에 128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이

때의 선발 인원이 502명이니 1인당 2천5백만 원이 드는 셈이다. 한양대학 입학처장의 말을 빌면 입학사정관 1명에 1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이처럼 과도한 비용 때문에 일부 자립도가 낮은 지방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 모집은 엄두도 못낸다. 대부분의 대학들도 입학사정관을 정규직보다는 임시계약직으로 모집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의 불안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문제도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5. 중등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된 내용은 다양한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별 특성화와 차별화 등이다. 아울러 수능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선택과목을 축소하는 것이다.

2011학년도 수능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4과목 등이지만, 2012학년도에는 탐구영역이 3과목으로 축소,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14년엔 탐구영역이 2과목으로 축소되며 외국어 듣기 평가 비중 최대 50%로 증가, 현재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2016년에는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2과목에서 외국어 영역은 국가 영어능력 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을 고등학교 졸업 학력고사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수능을 이원화하여 ‘언어, 수리, 탐구 영역 등으로 구분된 통합교과, 탈교과적 시험은 공통으로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치르도록 하고, 교과별 학력고사는 선택적으로 치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과별 학력고사는 대학에 따라 신입생 전형자료를 전공 학부별, 학과별로 요구하면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향후 대학입학의 전형요소로서 수능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고 학생부 반영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적성검사 실시, 내신, 수능, 논술 등을 계열별로 조합하는 등 대학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전형방법을 개발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면접고사 실시 대학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학별 고사의 경우 논술고사, 구술고사, 실기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 중등 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감안하여 국, 영, 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은 지양해야한다.

기타전형요소로서는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교외활동 상황, 각종 수상 및 표창자료, 봉사활동 자격 및 경력, 추천서,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입전형방법의 개선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에 갇히지 말고 교과서 밖으로, 즉 학교의 이론공부에서 사회의 실제공부로 전환하여 자기주도 학습력과 협동적 학습력을 길러 글로벌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하는데 있다.

중등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성과 집중성이 있는 교과목 이수를 유도하는 고교 교육과정이 필요

하며, 문과 이과의 구분을 넘어 적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교육현장에서의 실현가능성을 염두 하여야 한다.

고려대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는 중등 교과과정은 학교 교육의 최저 교육 성취 목표 아래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아무리 부진한 학생이라도

- ① 초등학교 2학년 마칠 때까지 한글을 읽고 쓰고, 자연수의 가감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초등학교 4학년 마칠 때까지 자연수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수락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체육종목 한 가지, 예술장르 한 가지 (1운동 1악기)를 숙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수학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⑥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개의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모든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꼭 필요한 하나 이상의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⑦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⑧ 대학 진학자들은 3개월 이상 하나 이상의 직업기술을 의무 무상으로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입학사정관제 실시에 따라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른 것은 비교과 영역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편성되어있다. 각 영역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선택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31일 창의적 체험활동종합지원 시스템(<http://www.edupot.go.kr>)을 개설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종합지원 시스템은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비교과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에 대한 활동에 대해 스스로 기록·관리하여 학교 생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웹 공간으로, 학생 스스로 작성하고 선생님이 승인·보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및 학습능력이 신장되고, 교사는 학생의 진로 상담 및 인성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의 자료 서식은 대학입학사정관제의 표준서식으로 활용되어 대입 전형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폭주하여 현재에는 우선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여 가입을 받고 있다.

6. 자원봉사계의 역할과 과제

상기에서 알아보았듯이 입학사정관제의 실시에 창의적 체험활동 중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봉사활동 부분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인증 시스템에 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미 학교자원봉사영역은 초·중·고교에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기위한 목적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하여 제도화되었으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199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해 1998학년도 이후 고교 입시에 총점의 8%를 반영하였었다. 그동안 학교 자원봉사의 문제점으로 점수 따기 위주의 봉사, 교과와 전혀 연관성 없는 추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부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거론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기관을 찾아가 장애인을 돌보거나 노인들의 말벗이 돼 주는 학생,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는 학생, 유원지나 동네 주변에서 청소하는 학생 등 훈훈한 자원봉사 활동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 인간교육 중심의 교육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발전하는 우리사회의 일면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입학사정관제 실시 확대로 봉사활동영역은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고, 대학 또한 입시전형요소로서 봉사활동 평가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학교자원봉사 또한 학습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하겠다. 그동안의 학교자원봉사가 단순한 노력봉사에 의한 양적 확산과 인식전환 위주로 이루어졌었다면, 이제는 질적 향상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수업의 일부분으로 도입하는 봉사학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하겠다.

봉사학습은 교과지도와 의미 있는 봉사가 결합된 교수 방법이다. 봉사학습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과 학교의 성취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봉사학습의 전체과정은 사전준비(Preparation), 봉사실천(Action), 결과반영(Reflection)의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이 잘 구성될 때 봉사학습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지역사회내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활동계획을 세우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며, 실행단계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환경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지식과 자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결과반영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얻은 지식과 경험, 기술이 자신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처럼 봉사학습을 통한 반영적 사고는 학생들의 학습과 책임감을 강화시켜주며,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협동심과 리더십을 길러준다. 봉사학습을 통한 학교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자원봉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개설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며, 자원봉사담당교사들의 사전연수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계와 교육과학기술부는 5.31 교육개혁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건전한 자원봉사 인식확산,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평가●인증 요소 개발, 학교자원봉사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다시한번 불게 될 중등교

육현장에서의 봉사활동 열풍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첫째, 교육계(시·도 교육청)와 자원봉사계(단체, 센터)와의 협조체제(모범사례: 부산시 교육청과 시·구 자원봉사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 둘째, 청소년을 위한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일선학교, 관공서, 자원봉사 단체 및 센터, 관련기관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 셋째, 공정한 봉사활동 실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 넷째, 시간 위주의 봉사활동 평가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의 평가틀을 마련해야 한다.
- 다섯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봉사활동 평가·인증 요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여섯째, 입학사정관들을 위한 자원봉사 전반(평가, 인증, 관리 등)에 걸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일곱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효과적인 국내활동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도록 권유한다.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이미 강남의 학원들은 여행사와 손잡고 중·고생을 위한 해외 볼런투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아직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급한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접하게 하는 것은 향후 자원봉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여덟째, 자원봉사 인증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입학사정관제 실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형에 영향을 주는 자료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이다. 특히 자원봉사의 경우 활동시간을 제외하고는 정성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자료작성자 또는 평가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다. 자원봉사 관리자를 위한 도덕성 교육이 매우 중요하리라 하겠다.
- 아홉째, 학생자신은 자원봉사활동이 단순히 활동시간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며, 대학 입학 전형요소가 더 이상 활동시간과 같은 계량적인 지표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자원봉사활동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이수하여야 하며, 활동과정에 충실하고, 활동 후 활동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열번째, 학부모는 수험생들의 시간절약을 위해 사전에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자원활동센터 등을 통하여 양호한 봉사활동 수요처를 개발하고 봉사활동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 자신이 먼저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지식과 활동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7. 결 론

현 정부의 대입제도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를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활성화하여 대입을 위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회풍조를 개선함과 더불어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학습중 입학사정관전형요소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봉사활동 영역에 대한 관리 운영은 교육계 독자적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자원봉사제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사회적 책무감이 요구되고 있다.

자원봉사제는 그동안 성인들의 자원봉사에 밀려 소외시 되어왔던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센터, 단체, 관련기관들은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마음 놓고 봉사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각 대학의 사회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중·고 때의 봉사활동이 대학시절에도 계속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계 및 대학 입학관련기관은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이 자원봉사제에 비해 지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봉사활동 부분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할 것이다.

8. 참 고 문 헌

- [1] 대학교육협의회(2009), 대학입학사정관제 사례발표 워크숍 자료집
- [2] 이성철(2006), 글로벌시대의 고등교육혁신전략, 중등교육
- [3] 이성철(2007), 글로벌시대의 대학혁신전략, 2007 교무행정관리자워크숍,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워크숍
- [4] 이성철(2008),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출제 기초연구에 대한 소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출제 기초연구 공청회 자료집, 교육과정평가원
- [5] 이성철(2010), 실용영어진흥특별법안 제정에 대한 토론, 실용영어진흥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대한민국 국회
- [6] 최병기(2008), 고교교육현장에서 본 대학입학전형의 문제점, 2010학년도 대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대학교육협의회
- [7] 홍후조(2010), '고교-대학 교육 연계로서 대입시, 경상대학교 입학사정관 연수자료, 경상대학교